

지역 **메아리**

식품산업, 미래의 먹거리로

완주군, 육성포럼 개최... 음식관광 융복합 실태·활성화 방안 토론

김제성덕사랑봉사회 협업체 기증

김제시 성덕면 성덕사랑봉사회는 29일 성덕면사무소에 면민들의 건강 관리를 위한 혈압계(시가 140만원 상당)를 기증했다.

성덕사랑봉사회(이하 성봉회)는 젊은 세대 10명을 주축으로 4년전에 발족 봉사활동중인 단체로 그 동안에도 독거노인 빈집정비 및 이삿짐 나르기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기증한 혈압계는 면사무소 코스모스 꽃길조성 사업 참여 등으로 마련된 기금을 주민들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다 100세시대 발맞추기 위한 첫걸음으로 면민들이 자유롭게 혈압을 체크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면민들의 방문이 잦은 면사무소에 협업체를 기증하게 된 것이다.

/김제=곽노태기자

김제경찰서, 김장 나눔 행사 열어

김제경찰서(서장 박훈기)는 지난 27일부터 29일까지 의무경찰 어머니회(회장 박옥진)와 함께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소외된 이웃에게 사랑을 나누기 위하여 경찰서장, 112타격대원과 의경어머니회원 등 30여명이 참여하여 주위를 훈훈하게 했다.

김제경찰서는 매년 의경어머니회와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고 올해에도 사랑과 정성으로 마무리된 김치를 장애인복지시설, 불우 독거노인 및 다문화가족 등에 전달 할 계획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진안환경농업대학 수료식 가져

진안군은 29일 이창로 군수, 박명석 군의장 등 관내 기관장과 수료생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7기 진안환경농업대학 수료식을 농업기술센터 강당에서 가졌다.

전문농업인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진안환경농업대학은 올해 총 94명(유기농업 27명, 농업마케팅 19명, 사과 48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지난 3월부터 시작된 유기농업, 농업마케팅, 사과 3개 과정별 100시간 이상의 이론교육과 현장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수료식은 식전 문화공연을 시작으로 교육과정 돌아보기 영상 시청과 농업마케팅과정 임길희(부귀면)씨의 수료소감 발표 순으로 진행됐다.

또한 한규선(진안읍)씨가 농촌진흥청장상을, 김학진(용담면), 강성철(마령면), 서급은(진안읍), 최은경(진안읍), 김백연(주천면) 등 각각 우수상과 공로상을 수상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완주군이 식품산업을 미래의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식품산업육성포럼'을 개최했다.

29일 완주군 문화강화실에서 열린 식품산업육성포럼은 식품가공사업자, 공동체, 마을기업, 전문가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식품전과 연계한 완주군 식품산업 육성방안, 식품소비 트렌드 대응전략, 음식관광의 융복합 실태와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이날 기초발언을 맡은 송재호 청와대 지속 지역발전위원장은 융복합 식품산업과 지역발전정책과제로 지역차원의 경쟁력 확보, 각 부처들간의 종합적 패키지 지원, 소비기반확충 전략 본격 추진 등을 발표했다.

특히 지자체 내 융복합 활동 육성뿐만 아니라 도농파트너십을 강화를 제시에 주목을 받았다.

주제발표에 나선 박은영 농축산식품부 사무관은 식품·외식산업의 성장산업화, 한식진흥 및 해외진출 확대, 농식품수출 확대, 농업과 식품·외식산업의 연계강화를 통한 정책추진 방향을 제시하고 완주군의 식품정책에 대한 발전방안을 제시했다.

오석록 우석대학교 교수는 농업, 식

품, 의료, ICT, 문화, 관광을 융복합화한 힐링 완전벨트화로, 변화하는 식품트렌드에 대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주교진 전주대학교 교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음식관광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또 음식관광 종합발전계획 수립과 전문적인 음식문화체험시설 조성, 테마를 가진 음식점마을과 농가레스토랑 조성, 식재료 공급기능을 하는 음식경관지구 조성, 지역별 음식관광 코스개발 등 음식관광 영역확대로 변화하는 트렌드를 완주군이 선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종합토론에 참석한 조승현 전북연구원장은 "지역 내 식품산업 규모를 확대하고 지역 의 수출활성화를 통한 지역 내 식품산업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중호 전(주)레저자연드림파크 팀장은 자연드림파크의 성공사례를 이야기하며 "식품에 대한 브랜딩, 그에 맞는 건축 및 인테리어, 견학 및 체험, 수익을 낼 수 있는 방안 등 다각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인대성 안주로컬푸드협동조합이장은 "식품정책을 총괄하기 위한 행정조직의 통합-조정이 필수다"고 강조

했다.

이중진 용진농협 상무는 체험관광객을 위한 반가공 상품개발이 시급하며 잉여농산물을 이용한 외식산업과 연계방안도 찾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상덕 완주문화재단 상임이사는 "식품산업은 문화와 함께 해야한다"며 "수십 년을 이어온 역사있는 완주군민의 음식을 발굴하고 민간산하이 힘을 합쳐 완주민의 음식을 문화로 승화하는 작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송광인 관광경영학회장은 "인근지역 레스토랑 및 관광상품인 투어패스 등과 연계해 완주에서 먹고, 자고, 맛있는 음식을 찾을 수 있는 종합적인 마케팅을 통해 완주를 대표하는 식품이 전국을 대표하는 식품으로서의 포지셔닝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로컬푸드 2단계 성장동력인 식품분야를 주력산업으로 농업을 견인하겠다"며 "외식, 음식문화, 관광을 촉진하는 식품산업은 15만 자족도시로서 면모를 갖추는데 하나의 축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김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활동 마무리

민선6기 공약사업 이행 현황 점검

김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이하 행정특위)는 29일 행정사무감사 강령을 끝으로 21일부터 9일간 진행한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마무리 했다.

내방문 의장을 제외한 13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행정특위 위원들은 감사기간 동안에 사전 준비한 각종 자료를 활용하여 집행부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진행하여 불합리한 관행과 위법 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해 지적한 후 따끔한 질책과 함께 시정을 요구했다.

주요부서에 대한 중점 논의사항을 살펴보면 먼저 기획감사실을 대상으로 민선6기 공약사업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관계 공무원의 노력을 촉구하였으며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공약사업을 정확하게 평가하여 공개할 것을 주문했다.

문화홍보축제실에 대해서는 지평선

축제 프로그램 다양성 확보와 줄어드는 국비보조금에 대한 예산확보 대책 수립을 요구했다

행정지원과 감사에서는 소수 직렬을 배려하지 않고 단행되었던 김제시 인사에 대해서 지적하고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행정을 해줄 것을 주문했다.

여성가족과에 대해서는 여성친화도시에 걸맞는 사업추진이 미진하다고 지적한 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의견을 마련하여 줄 것을 주문했다.

새만금해양정책과 감사에서는 2023년 개최되는 새만금캠버리 대회를 적극 활용하여 KTX 역사 신실 등 김제 관련 사업들이 전라북도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안전총괄과에 대해서는 울여를 폭우 피해가 발생했을 때 공무원의 부적절한 대응으로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고 질타하며 신속하고 적극적인

인 대응을 주문했고 최근 발생한 포항 지진사태를 예를 들며 지진대피요령에 대한 대민교육과 홍보를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이밖에 보건소 건강증진과 감사에서는 출산장려금 인상 등 인구유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줄 것을 요청했고 농업기술센터 5개 부서에 대해서는 농업보조사업 대상자 선정에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부조금 부정수급을 사전에 차단하고 사업완료 후에는 사후관리를 통해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보조금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백현 위원장은 "짧은 일정동안 감사에 적극 협조해 준 집행부 공무원과 내실있는 감사를 펼친 행정특위 위원들에게 감사를 표한다"고 말하며 "이번 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들은 의원 개인의 의견이 아닌 시민의 의견임을 명심하고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아이가 미래다 미래N 완주다'

육아박람회, 12월 8일 ~ 10일까지... 우석대 체육관에서 개최

완주군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아이가 미래다 미래N 완주다'라는 슬로건 아래 2017 완주 육아박람회를 12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우석대학교 체육관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완주군이 주최하고 완주군 자원봉사센터가 주관하며, JTJ 전주방송과 우석대학교의 후원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육아 박람회는 완주군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만큼 지역의 업체들이 함께 참여해 완주군의 홍보는 물론이고, 완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아이가 미래다 미래N 완주다'라는 슬로건답게 살고 싶은 완주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준비했다.

특히 이번 행사는 처음인만큼 판매 위주보다는 홍보 위주로 진행될 계획이며, 매일 한 차례

씩 선착순 200명(3일간 총600명)에게 기념품 증정은 물론 다른 박람회와는 달리 누구에게나 입장료가 무료이다.

한편, 이번 박람회에는 아이들과 엄마들의 건강을 책임질 완주 로컬 우유를 비롯 전북육아종합지원센터 등 40여개의 업체가 참여하여 참여 숫자의 양보다 홍보 등 질적으로 좋은 업체들이 참여함으로써 내실을 다지는 박람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12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열리는 육아박람회에 완주의 엄마들은 물론이고, 전라북도의 시군 등에서도 육아박람회에 관심이 많은 엄마들이 참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행사 개막식은 12월 9일 11시에 개최 될 예정이다. 박람회 참여 등의 문의는 전화(063-230-2218) 혹은 262-6634로 하면 된다.

/완주=이종복 기자

"흔들림 없는 시정운영 최선 다할 것"

이후천 김제시장 권한대행

초유의 시장 권한대행 체제를 맞은 김제시가 시민들을 향해 민선 6기의 차질 없는 마무리를 약속했다



29일 이근식 김제시장이 대법원 확정판결로 시장직을 상실함에 따라 시장 권한대행을 맡게 된 이후천 부시장은 30일 오전 언론브리핑에서 "김제시장 권한대행을 맡게 된 것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이근식 시장의 민선 6기를 잘 마무리 하고 민선 7기를 맞는 데 차질이 없도록 전력을 다하겠다. 시민, 공직자여러분

도 남은 기간동안 적극적인 지원과 변함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김제시는 앞으로 안정적인 시정운영과 누수 없는 행정업무 추진을 위해 주요 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며 민생중심의 생활예산과 일자리 창출지원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2018년도 예산안(6,187억원) 편성을 위해 시의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시차단 방역과 민생안정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이후천 시장권한대행은 긴급간부회의를 소집해 주요 현안사업을 점검하고 청원조치를 통해 공직기강 확립과 선거중립, 내년 예산 확보와 돌절기 현안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주문할 예정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정부합동평가 실적 향상 집중점검 가져

김제시가 지난 28일 지포 실무담당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후천 김제시장권한대행 주재로 2018년 정부합동평가 실적 향상을 위한 지표별 점검 보고회를 가졌다고 29일 밝혔다.

김제시는 지난 7월부터 정부합동평가 2년 연속 최우수 지자체 달성을 위해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5차례에 걸친 대면 보고, 실무담당 워크숍, 전

문가 컨설팅, 협업지표 중점관리로 지속적으로 행정력을 집중해왔다.

이날 보고회는 정량지표 119개에 대한 자체 실적 점검 결과 노력도에 따라 실적 상승이 가능한 시군수급자 발굴 노력도 등 20개 지표에 대하여 그간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대응방안 마련에 대하여 집중 토론하였다.

/김제=곽노태 기자

진안고원
고향의 정(情)이 살아있는
진안고원 고향할머니장터
장~ 보러 오세요
 운영일자: 매 장날 운영(4,9일장)
 장 소: 진안고원시장 중앙광장 내



진안군
행사문의
 진안군청 전파산업과
 063-430-2951